

[영화]

유럽·표 영화 '10%대 운동' 아시나요



오동진 씨네카페

국내 영화계에 일부 영화인들이 중심으로 '10%대 운동'이 전개돼 눈길을 끌고 있다.

'10%대 운동'은 한마디로 ▲유럽영화 ▲일본 및 아시아 영화 ▲미국의 독립영화 등 국내 시장점유율을 10%대, 그러니까 11~19%까지 올리자는 것.

국내 영화시장은 한국영화가 70%대, 할리우드 영화가 25%대 등 두 영화가 무려 95%나 시장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장이 극도로 왜곡돼 있는 상황.

'10%대 운동'은 그 같은 국내 영화시장의 구조변화를 추구하는 일종의 관객운동인 셈이다.

한국·할리우드가 무려 95% 장악...심각한 '왜곡'

국내영화시장 구조변화 촉구 관객운동으로 펼쳐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1/4분기의 영화 시장을 분석한 영화진흥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영화와 할리우드 영화, 특히 한국영화의 급격한 시장 고공행진에 비해 이들 영화를 제외한 다른 영화들은 고작 4.8%의 시장점유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4.8% 가운데 중국어권 영화는 2.6%, 일본영화가 1.2%, 나머지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태국 등의 영화는 전체 시장의 1%만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화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일부 언론과 관객들이 한국영화의 지나친 성공에 취해 국내 영화계가 현재 독을 마시고 있는지, 악을 마시고 있는지 분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한국과 할리우드의 시장 과점 현상이 계속되면 한국 영화시장은 향후 2~3년 안에도 급속하게 몰락할 수 있는 위기"라고 지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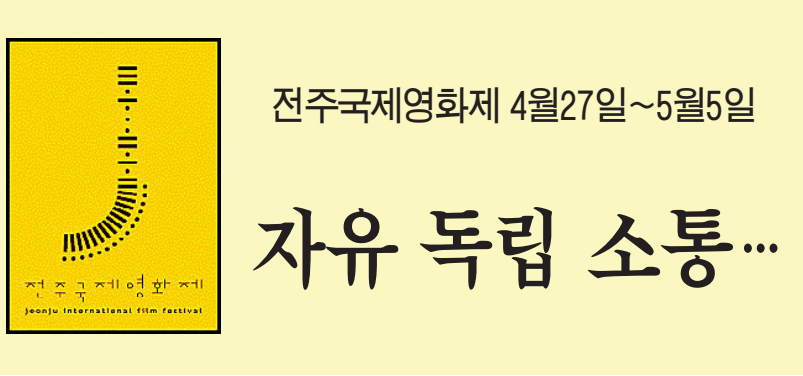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예술영화, 비상업영

화의 경우 그것이 국내 독립영화 계열의 작품이든 아니면 해외작품이든 도저히 국내에서는 생존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들 작품이 전혀 팔리지 못하는, 극단적인 문화적 홀림 현상이 지배하는 한 궁극적으로 산업 자체가 붕괴할 우려가 있다는 것. 문화적 다양성, 국가적 다양성이 보호될 때에만 영화산업이 안정적이고도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내에는 현재 외화수입자들이 거의 철수한 상태인 데다가 이들 비한국, 비할리우드 영화를 취급하는 비디오사 및 DVD사들도 거의 문을 닫은 상태다.

/영화전문기자-ohdj@hanmail.com



전주국제영화제 4월27일~5월5일

자유 독립 소통...

제7회 전주국제영화제가 이란의 자파르 파나히 감독의 '오프 사이드'를 개막작으로 선정하고 오는 27일부터 5월 5일까지 9일간의 일정을 시작한다. '오프 사이드'는 축구장 출입이 금지된 이란 여성들이 남장을 하고 축구장 진입을 시도하는 내용. 전주영화제측은 '오프 사이드'가 "자유, 독립, 소통이라는 전주영화제의 슬로건과 잘 맞는 작품"이라며 개막작 선정 이유를 밝혔다.

개막작 '오프사이드' 폐막작 '내 청춘'

15개 극장서 42개국 작품 194편 상영

이번 영화제의 폐막작은 김영남 감독의 '내 청춘에게 고향'이 선정됐다. 이 영화는 동시대 한국에서 살아가는 청년층 상들의 모습을 냉정한 시선으로 포착한 작품으로 '나는 날아가고... 너는 마법에 걸려 있으니까'를 비롯한 단편들로 주목받은 김영남 감독의 장편 데뷔작이다.

'여자는 남자의 미래다'의 김태우와 '꽃섬'으로 주목받은 김혜나가 주연을 맡았다.

전주영화제는 이 영화를 "창의적이고 미학적인 모험이 돋보이는 데뷔작"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올해 전주영화제에는 모두 42개국 194편의 영화가 11개 부문에 걸쳐 상영될 예정이다. 이중 경쟁 부문인 '인디비전'과 '디지털 스펙트럼', '디지털 삼인삼색' 작품들이 영화제가 가장 '미는' 작품들.

그러나 영화제 마니아들은 전세계 거장들의 신작과 중견 및 신인 감독들의 작품을 엄선해 상영하는 '시네마스케이프'에 보다 주목하고 있다.

여기에는 필립 가렐 감독의 '평범한 연인들'을 비롯, 마노예 데 올리비에라 감독의 '마법의 거울' 등 거장들의 신작과 미카엘 글라보어의 '노동자의 죽음', 요리스 이벤스의 '콘크리트 컨스트럭션' 등 동시대 노동자들의 삶을 작품들이 상영될 예정이다.

전주영화제는 젊은 감독들이 만드는 실험적이고 대안적인 영화들이 집대성되는 공간 만큼 한국 단편영화의 흐름을 비판적으로 짚어보는 '한국단편의 선택: 비평가주간' 같은 부문 역시 다른 영화제에 비해 주목도가 높은 편이다.

올해는 총 19편의 단편이 상영될 예정이다. 올해 전주영화제는 전주소리문화의 전당을 비롯한 전주 시내 15개 상영장에서 열린다.

/오동진 영화전문기자 ohdj@hotnail.com



'오프 사이드'



'평범한 연인들'



'노동자의 죽음'

뉴욕타임즈, '미스터 복수' 박찬욱 감독 대서특필

"미국 진출 조급식 조급식..."

미국의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즈 주판관이 최근 한국의 박찬욱 감독에 대해 6페이지짜리 인터뷰 기사를 게재해 눈길을 모았다. 국내 영화감독 가운데 뉴욕타임즈에 이처럼 장문의 기사가 게재되는 박찬욱 감독이 처음이다.

뉴욕타임즈는 '진정한 남자'의 뉴욕 개봉에 맞춰 인터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내 영화계에서는 박찬욱 감독이 할리우드 진출을 위한 조심스런 행보를 시작한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그의 영화 대부분을 투자 지원하고 있는 국내 메이저 CJ엔터테인먼트는 할리우드 내 파트너인 '드림웍스' 등을 통해 홍콩의 오우삼 감독처럼 박찬욱 감독을 미국에 진출시키기 위해 몰미 작업을 벌여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개봉 당시에도 300만이 훨씬 넘는 관객을 모을 만큼 인기를 모았던 '진정한 남자'는 사실 지난 해 9월말 뉴욕영화제때 초청돼 현지 영화계 관객들로부터 기립 박수를 받았던 작품. 이 때를 계기로 박찬욱 감독은 미국 할리우드 진출을 조급식 공시화 시켜왔다.



박찬욱 감독



박찬욱 감독 인터뷰 기사

그의 전작인 '공동경비구역 JSA'나 '올드보이'는 이미 할리우드 감독들에 의해서 리메이크되고 있는

상황. 현재 박찬욱 감독은 '깡스 오브 뉴욕' '에비어터' 등을 만든 미국의 유명감독 마틴 스콜세지, '킬빌 1·2' 등을 만든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 등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얼마 전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한국의 스크린쿼터 사수 투쟁을 지지한다는 국내 영화계에 보낸 것은 박찬욱 감독의 중간역할이 컸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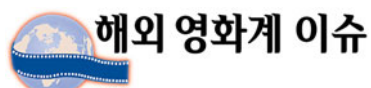
뉴욕타임즈는 이번에 '미스터 복수(Mr. Vengeance)'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박찬욱 감독을 이른바 '아시아 익스트림'을 선도하는 감독으로 평가했다.

'아시아 익스트림'이란 폭력이 많이 가미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를 통해 새로운 미적 성취를 이룬 작품들을 통칭하는 용어. 이런 류의 작품으로는 멀게는 샘 페킨파의 서부극 '와일드 벤치'를 비롯, 가깝게는 쿠엔틴 타란티노의 작품 대부분이 해당된다.

박찬욱 감독은 현재 부산에서 가수 비와 임시정 주연의 새영화 '사이보그'를 촬영 중이다. /오동진 영화전문기자 ohdj@hanmail.com

역시 '카사블랑카'

美 시나리오작가 선정 최고 시나리오에



해외 영화계 이슈

영그리드 버그먼, 험프리 보그트 주연의 '카사블랑카'가 미국 역사상 최고의 시나리오로 선정됐다. 미국 시나리오작가 단체인 작가길드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위대한 시나리오 101편'을 선정한 결과, '카사블랑카'가 1위를 차지했다고 지난 7일 발표했다.

2위는 프랜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의 '대부 1편', '대부 2편'도 10위에 랭크됐다. 생존하는 시나리오 작가 중에서는 우디 앨런 감독이 '애니홀'(6위), '범죄와 비행'(57위), '맨해튼'(54위), '한나와 그 자매들'(95위) 등 4편을 순위에 올려놓았고, 코폴라 감독도 '대부 1·2'편과 '매트' '지옥의 묵시록'도 같은 4편을 랭크시켰다.

그 다음이 찰리 카우프만('어때미션' '존 말코비치되기' '이터널 선샤인'), 윌리엄 골드먼('내일을 향해 쏴라' '대통령의 사람들' '프린세스 브라이드')으로 집계됐다.

/오동진 영화전문기자 ohdj@hanmail.com

역대 최고의 시나리오 베스트

- 1. 카사블랑카
2. 대부
3. 차이나타운
4. 시민케인
5. 이브의 모든 것
6. 애니홀
7. 섀넬로
8. 네트워킹
9. 뜨거운 것이 좋아
10. 대부2



산행
▲올바른산행법 16강 16원
▲산악응급처치 4원
▲산악초상처치 4원
▲산악응급처치 4원
▲산악초상처치 4원
▲산악응급처치 4원
▲산악초상처치 4원
▲산악응급처치 4원
▲산악초상처치 4원
▲산악응급처치 4원
▲산악초상처치 4원

정성의 자존심!!
삼호센트럴타워
상가 분양/임대
상담 문의 ☎ 061393-5550
▶총별 권장업종
01층: 대형마트 / 약국 / 패션잡화관
02층: 패션 의류관 / 전자 / 가전 / 컴퓨터관 / 마용실
03층: 짬뽕방 / 웨딩홀 / 고급사무나
04층: 클리닉센터 / 병의원 (아미인후과, 안과, 치과)
05층: 소연회장 / 대연회장 / 학원 / 불랑장 / 당구장
06층: 전문상담가 / 레스토랑 / 성인용바 / DVD영화관 노래방 / 호프
방문상담환영!! (상가층)
전통있는 상권지역에서 새로운 상권을 선포하여 지역의 대표건물 전문종합 쇼핑몰 탄생!!

국민지도
http://www.hanmap.co.kr 국민지리정보(주)
최신정보수록, 3월 도시계획고시안 확정
2006 광주광역시 지적, 임야 약도 판매중
광주광역시 책자 50% 세일 10만원
광주광역시 책자 포켓용 3만5천원
전남전지역 지번도 판매 (매장방문시 사은품 증정)
광주시사: 062-385-0114
목포지사: 061-284-7833
순천지사: 061-744-0973
광주지사 위치: 쌍촌동 무진로 버들마을앞

중영국토개발건설
GS부동산컨설팅
T. 572-7744, 9966
(합동) 011-607-9908
(합동) 011-607-9908
상가 임대
1층: 약, 금, 은, 방, 안경점
2층: 내과, 소아과, 미인학과
3층: 안과, 치과
4층: 학원, 기타
양산동 GS 그린자이
35평형 분양가 195800
3600 남부, 최상층 남향
중간난방 매가 1977천
42평형 분양가 294500
195천 남부 16층 중간난방
맨얼음 전방최고
매가 2921천 700만
49평형 분양가 294200
2층난방, 지하에 약수터 소
제 개발예정 구역내 관리시설
있음. 평당 12,000원
광주 동구 소재. 13,098평.
자연녹지, 차량출입용이, 전
기공급, 지하에 약수터 소
제 개발예정 구역내 관리시설
있음. 평당 12,000원
도지용 임야
합동 이사폭터, 너털재와 검
문소 사이 우측 면적 약 2500
평. 평당 50,000원. 조경가